

■ 주요 업무 사례 ■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대리하여 은마아파트 부지에 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지평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대리하여 은마아파트 부지에 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건축된 아파트에도 집합건물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선례로서 큰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관련 기사]

- 매일경제 - 은마아파트 재건축, 청신호(2015. 6. 24.)

[담당 변호사]



정원 변호사



박호경 변호사



마상미 변호사